테러와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글대장경 완역, 환경운동 활발, 직장직능 불자회 급성장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았다. 특히 포교, 봉사, NGO 등 각 분야에서 발군의 노력으로 불법을 알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인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업적은 시끄럽고 혼탁해져 가는 사회의 청량제가 되기도 했다.

2001년을 빛낸 불자들

본지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2001년을 빛낸 불자들'을 선정했다.

평화 · 자비 · 지혜의 정신 온누리 퍼뜨려

우리말 대장경 완역

월운 스님
동국역경원장

스승 운허 스님의 뒤를 이어 역경사업에 일생을 바쳐 온 월운 스님은 37년만에 완역된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으뜸 공로자다. 93년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해 그간 느슨했던 역경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스님이 역경원장에 취임한 이후 매년 30여권 안팎의 한글대장경을 간행해 역경불사가 활기를 띄었다. 또 9월 5일에는 한글대장경 완역 회향법회를 개최해 한글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불교학 연구에 큰 공적

지관 스님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학을 정리하는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한 불교 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과 〈한국고승비문총집〉 〈계율론〉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등의 편찬을 통해 불교학 중흥의 근간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올해 포교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시작한 가산 포럼과 삼학총서 발간 역시 흐려져가는 수행 풍토를 바로잡는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다.

참회로 갈등 해법 제시

도법 스님
실상사 주지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 과정에서 빚어진 해인사 수좌들의 실상사 폭력에 대해 도법스님은 21일간의 단식 기도 정진을 함으로써, '대응'이 아닌 '스스로의 참회'를 선택,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켰다. 힘의 우위로만 대결과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불교계의 그릇된 관행에서 도법스님의 참회는 '가장 불교적인' 해법이자 신선한 충격을 불교계와 일반사회에 던졌다. 또 종단의 고질적 병폐였던 폭력문제에 대한 자성의 불씨를 지핌과 동시에, 승가는 물론 불자들에게 더 이상 폭력이 종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하철역 법음 전파

성운 스님
'풍경소리' 이사장

성운 스님은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지난 9월 전국 4백여 철도 역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 올해 봉축열차를 운영해 60만여 시민들이 동참토록 해 성공적인 초파일 축제로 이끌어냈다.

불교환경운동 주역

수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새만금 현장은 물론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그리고 정부청사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새만금 사업의 '반생명성'을 알리고, 종교인,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 생명학회' 조직에 앞장서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9월 6일에는 불교환경연대를 창립해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위치한 사찰의 생태 및 문화 조사,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교육,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통일 · 생명운동 선도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결사 10년만인 9일 제3차 천일결사를 회향했다. 법륜스님은 국내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좋은벗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국제이티에스를 통해 북한동포 돕기, 환경운동, 제3세계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1일을 시작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1000일 정진을 시작한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환경 및 통일운동을 강화해 왔다.

뇌허전집 간행 산파

광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뇌허 김동화 전집〉(전14권) 출간에 산파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광우 스님이다. 스님은 58년 정각사를 개원하면서 김동화 박사를 법주로한 첫 법회를 시작으로 돌아가신 80년까지 계속했다. 또한 김동화 박사가 제시한 '불교의 현실화'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를 정각사 신도회 표어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동화 박사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학문적인 업적을 모아 〈뇌허 김동화 전집〉을 간행했다.

비구니사 정립 혼신

본각 스님
한국비구니연구소장

한국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열악한 상황아래서도, 비구니사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900여 비구니 스님들을 인터뷰해 비구니 인명록 발간을 준비중이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을 모아 40여년간 산재된 비구니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비구니 강원사, 비구니 계율 정신사, 비구니 포교활동사 등 비구니 관련 13개 주제로 논문집을 발간한다.

수행환경 보호 전력

지율 스님
천성산보호대책위원장

무분별한 임도 개설과 고속철도 관통으로 천성산이 심각한 파괴에 직면하자 스님은 곧바로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 천성산보호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천성산 보호에 나섰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 고층습지 보존을 위해 고속철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내원사 등 천성산내 사암들의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한국 승단에서 상대적으로 대외적 활동이 미약한 비구니 스님의 활동 영역 확대와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사찰음식 대중화

선재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원장

선재스님은 4월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사찰음식 및 건강 무료강좌를 실시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또 3월 26일~30일 방송된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사찰음식'에 출연해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10월 30-31일 제주 약천사에서 열린 '한·일 사찰음식문화 교류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했다.

깨달음 대중화 주창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

김재영 교수는 지난 9월 지금의 수행 풍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만인견성'을 주창한 초기불교 개척사 연구서 〈붓다의 대중견성운동〉과 〈초기불교 개척사〉(도피안사)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이 두 권은 김 법사가 지난 18년 동안 '대중견성론(大衆見性論)'을 화두로 포교현장에서의 체험과 여러 사료를 천착해 연구한 노작이다. 책은 초기불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삶과 초기 대중들의 개척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대중 견성운동의 실상과 견성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160여불자회 결성 앞장

노옥섭
공불련 회장

노옥섭 회장은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 1년만에 160여 정부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에 불자회를 결성했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40여 개 남짓한 공무원불자회가 12월 현재 4배 이상 증가,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신행단체로 발돋움시킨 것. 노 회장은 공불련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불련이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의 모범이 되도록 했다. 또한 불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한 공직 사회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마크와 로고를 만들어 공무원 불자들에게 배포해, 그들의 신심을 북돋았다.

'연행록' 100권 펴내

임기중
동국대 국문과 교수

임기중 교수는 30여년 자료수집 끝에 조선시대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남긴 기록인 '연행록'을 집대성해 100권 짜리 〈연행록 전집〉(동국대 출판부)으로 펴냈다. 현재 500여 종으로 추정만 할 뿐 목록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350여 종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연행록 전집〉은 고려말~조선말 700여 년에 걸친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 문화교류는 물론 종교, 복식, 음식, 무역, 생활사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인문학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종교 개혁 이끌어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개 민간단체들이 4월 4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시킨 '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범종교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종교 NGO 네트워크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신앙과 직제제도의 개혁, 물량주의 극복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성차별과 가부장적 종교문화 청산,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해 종교인 및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티베트 난민돕기, 평화 및 국제참여불교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티베트에 구호 손길

김태제
경기불교회관 관장

불교아카데미 NGO지원분과장겸 경기불교회관 김태제 관장은 11월 29일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해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 10만 달러(약 한화 1억3천만원)를 기증했다. 김 관장은 지난 7월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와 라다크 난민촌을 방문, 티베트 난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즉석에서 '우물파기' 사업을 위해 8천 달러를 즉석에서 보시하기도 했다. 최근 8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경기불교회관의 문을 연 김 관장은 경기불교회관을 수원불교의 신행요람으로 만들어 출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포교, 교육,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밀매단 검거

장인성
서초경찰서 형사계장

장인성 경감은 올 2월 전국의 사찰 등을 돌며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대규모 문화재사범을 잇달아 검거함으로써 불교문화재 도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이후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등의 성과는 연이은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 검거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덕분에 93년 대둔사 성보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불서 13권과 89년 부여 무량사에서 도난당한 불상 3구 등 소중한 성보 수십 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청년불교운동 활성화

황국근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황국근 회장은 청년불교 운동 활성화를 위해 4월 낙동강 원류따라 걷는 구도도보순례를 시작해 내년 초파일 총 16회의 순례로 회향하게 된다. 매월 1회 30km의 대장정을 도보하며 청년불자들을 환경지킴이로 변모시키고 있는 이 순례는 청년 불자들의 신심 증장과 환경 의식 고취라는 두 열매를 거두었다. 낙동강 줄기마다 청년불자들의 불심을 수놓은 이번 도보순례로 환경운동, 청년불교운동 활성화의 발판을 다진 황회장은 12월 불교공동체를 표방하는 NGO '늘푸른세상'을 결성하는 등 부산 NGO를 이끌어 갈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모두 부처님 같이!

-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 체험 -

참선과 예불 그리고 바른 공양! 스님과 함께하는 진리로의 여행!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 소 : 직지사 설법전
+모이는시간 : 2002년 1월 14일(월)오전 12시까지
+대 상 : 초등학교 (4,5,6학년)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수련 과목 : 예불, 발우공양, 다도, 불화, 금강태극권, 전통등만들기, 우리가락배우기, 불교문화체험
+우편접수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포교국

+E-mail접수 : hyunmaru76@hanmail.net
+전 화 : 054)436-6174, 436-2773 Fax)436-3174
+모집 기간 : 2001년 12월 17일 – 2002년 1월 10일까지
+모집 인원 : 선착순 50명

◇ 수련기간 : 2002년 1월 14일 – 19일(5박6일)
◇ 동참금 : 100,000원
◇ 우체국 온라인 : 702829-01-000365(예금주 : 직지사)

동국제일가람 직지사 주지 신산 합장

참 가 신 청 서

이 름		성 별	남 · 여
주 소		전 화	
학 교	초등학교	학 년	학년

새해에는 원불 조성 봉안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 원불. 아미타 영구 위패불 -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힘이 들수록 빈 가슴에 채워지는 갈등과 번민은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 뿐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지난날에 지어놓은 복이 이렇게도 없나 여겨집니다.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복 지을 기회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작은 복이지만 부처님 법 만남을 행복해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하는 일이 안될 때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도 안될 때에는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내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냈는 데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헐어 보시하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 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충만케 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원사(寶園寺)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맞이하는 영구 위패 불(1.5x 1.2x 0.8)과 생(生)자의 원력과 소원을 담은 행복한 삶을 위해 원불(願佛:법륜마크)을 조성 봉안하고자 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아미타 부처님 품안에 영구히 모시고 정성스러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유주 무주 애혼 고혼의 모든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대 발원의 의미이며, 원불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원불에 자신의 발원과 원력을 싣고, 원력과 발원을 실은 원불을 모신 공덕으로 팔만 사천 불 보살님과 선신(善神)의 보호와 가피로 스스로의 하는 일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식이 크게 성장하는 지름길을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죽어 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부처님 그림자가 비추는 곳에 천마와 외도가 자취를 감춰 모든 재앙이 즉시에 소멸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큰 공덕은 수학 공식으로도 비유할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원불을 모시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원불을 모신 원력과 공덕으로 남은 생과 미래생에 무량복덕을 수용하며 이웃사랑으로 남겨두는 여유를 두려 합니다.
오는 새해 불국토를 장엄한 공덕으로 무량 복 받으소서.

불기2546년 원단 정안 합장

동참방법 원불 1인 1영구 위패 불
동참 발원금(일시불 - 200만원, 100만원씩 - 2회, 20만원씩 - 10회)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축대 불사 동참 10만원 * 농 협 227050-51-180421 강보원(보원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26-1 전화 031-585-4897, 011-703-0408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